

최연의 산 이야기 <31> 팔공산 1



팔공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멀리 비로봉엔 송신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팔공산은 나라의 기강 세울 인물을 기른다

팔공산(八公山)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사이에 우뚝 솟은 하나의 산맥군(山脈群)이다. 동쪽 끝의 관봉(冠峰, 일명 갖바위)으로부터 동봉(東峰, 1155m), 염불봉(念佛峰, 1121m), 주봉인 비로봉(毘盧峰, 1192m), 서봉(西峰, 1041m), 신령재(993m), 파계봉(把溪峰, 991m), 가산(架山, 901.6m)에 이르기까지 1000m를 오르내리는 여러 봉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30여 km나 이어져 있으니 과거 '팔공산맥(八公山脈)'이라고 할만하다.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鎭山)으로 신라시대에는 대구를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佛城), 대구(大丘) 등으로 불렀는데 이때부터 영험이 있는 명산으로 일컬어져 왔다. 팔공산의 신라 때 이름은 신라의 오악 중 중앙(中嶽)에 해당되는 부악(父岳)으로 동수산(桐敷山), 공산(公山)으로도 불리었다.

오악사상은(五嶽思想)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중국에서는 태고시대부터 제왕(帝王)은 오행(五行)의 운행에 의해 등극한다는 설을 좇아서 나라 안에 동악 태산(泰山), 서악 화산(華山), 중앙 송산(嵩山), 남악 형산(衡山), 북악 함산(恒山)의 다섯 진산(鎭山)인 오악을 정해놓고 해마다 2월과 8월에 그곳에 나가 성대한 제사를 베풀었다. 제왕의 만수무강과 왕조의 무궁한 계승 그리고 국태민안을 위해서였다.

이렇듯 신격화된 오악사상은 갖 산의 종찰(宗刹)에서는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부적을 만들어 일반백성들에게 시주를 받고 팔기도 했다. 그 액땜의 내용은, 동악의 부적은 장수, 서악의 부적은 전쟁을 피하게 하고, 중앙

의 부적은 재물을 많이 얻고, 남악의 부적은 상해와 화재를 당하지 않고, 북악의 부적은 물난리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오악사상을 본떠서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부터 나라 안에 5악을 정하고 매년 봄, 가을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신라는 동 토함산(吐含山), 서 계룡산(鷄龍山), 중앙 부악(父岳), 남 지리산(智異山), 북 태백산(太白山)을 오악으로 했다. 고려와 조선은 동 금강산(金剛山), 서 묘향산(妙香山), 중앙 삼각산(三角山), 남 지리산(智異山), 북 백두산(白頭山)을 오악으로 정했다.

부악 또는 공산으로 불리던 산이 팔공산으로 바뀌게 된 데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927년 후백제의 왕 견훤이 신라의 서울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왕족 김부를 경순왕으로 세웠다. 이 때 전리품을 가지고 완주로 개선하는 중에 팔공산 아래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공격을 해왔다. 치열한 전투 끝에 왕건이 대패하고 신승겸과 김낙 등 8명의 충직한 부하 장수가 전사하였다.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 왕건이 이들을 기리기 위해 격전이 벌어졌던 곳에 사당을 세우고 산의 이름을 8명 장수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팔공산(八公山)으로 불렀다고 한다. 특히 신승겸은 왕건의 옷을 입고 도망치다가 자신은 잡혀죽고 왕건을 살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팔공산은 중앙에 해당하는 신령스러운 산이었기에 치성을 드리면 영험이 있다는 민간신앙의 한 양상이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치성 장소가 갖바위라고도 불리는 관봉(冠峰)과 수태굴(受胎)이다.

갖바위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소원성취 한다고 하여 지금은 전국 제일의 입시기도의 메카가 되었고, 수태굴에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반드시 임태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공산은 풍수지리적으로는 '천황제일봉(天皇第一峰)'과 '제산지상(帝産之象)'의 두 형세(形勢)를 이루고 있다 <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적혀 있다. 다시 말해서 팔공산은 '천황(天皇)' 즉 천자를 상징하는 첫손가락 꼽을 봉우리의 형세(形勢)와 '제왕(帝王)'이 나올 형상(形象)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공산 기슭에서 "성현이 배출되고 공경(公卿)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고, 천백년 영원토록 나라의 기틀과 기강을 다질 훌륭한 인물이 끊이지 않으리라(聖賢輩出公卿林立 千百年扶植國)"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26년간이나 대제학을 지낸 서거정(徐居正)이 자기의 고향인 달구벌 대구의 주변 경승(景勝) 10곳을 시로 읊었는데, '공산에 가득한 눈(公嶺積雪)'을 소개한다.

천길 팔공산 협준한데 公山千丈峻峯層
흰 눈이 가득하니 이슬이 맑다 積雪漫空沆瀣澄
신사 있으니 응당 신령 있는 법 知有神祠靈應在
해마다 정월 초사흘 서설 내려 풍년이 든다 年年三白瑞雪豐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열은 안개가 깔린 날 오후

다가오는 소리가 있다. 긴장하며 귀를 기울인다. 발밑으로 파고드는 소리인가 하여 발 주위를 살폈으나 이상이 없다. 고개 들어 앞을 막아선 나뭇가지들을 보았다.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다래넝쿨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노란빛의 얼굴에 검버섯 핀 노인이 땅으로 떨어진다. 소나무 가지 위로 머리를 치켜들었던 다래넝쿨이 하늘은 기어이 거머쥐지 못한 채 몸을 흔든다. 어께 위로도 툭 나뭇잎이 떨어진다. 머리 위를 바라보니 하늘을 가렸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자리를 비우며 하늘길을 열었다.

다시 한 번 바람이 불자 느릅나무 가지에서 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가지는 힘이 없다. 하늘을 찌를 듯 뻗던 기운이 사라졌다. 건똥 건똥 바람이 분다. 나뭇잎들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릴듯 맑듯 들린다. '트, 티, 투, 다, 트, 트' 슬쩍 다가오는 바람의 힘조차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가 나를 흔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작은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느릅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빈 벌통에 들어온 벌들의 날갯짓은 힘차다. 꿀과 화분을 모아들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겠지. 올 겨울을 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 벌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20통이 넘는 토종벌은 올 봄의 추위와 애벌레가 썩는 전염병과 말벌과 서양벌들의 침입 등으로 인해 한 통도 남아있지 않았다. 벌통을 치우기도 귀찮아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 중 하나인 느릅나무 아래 벌통으로 벌들이 드나드는 걸 며칠 전에 발견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디선가 날아들었다. 그나마 저나 아무리 보아도 겨울을 나긴 힘들 것 같다. 병이 더 이상 돌지 않고 말벌의 공격도 없고 양벌들로부터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모으는 기간이 너무 짧다. 꿀이 풍족한 상태라면 또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햇살 뽀뽀한 날을 만나기가 어렵다.

가만 이렇게 서있을 때가 아니지. 집 뒤 들개 밭으로 가보았다. 잎이 누렇게 누렇게 꼬투리가 거무튀튀하게 변해가는 것이 여기저기 보였다. 배아 될 시기가 다가왔다. 당장 배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헛간의 낫을 들고 도랑으로 가서 솥물에 갈았다. 갈다보니 낫자루가 삐거덕 흔들린다. 고정 못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졌다. 수리를 하다가보니, 오늘 당장 할 일은 끝물고추 따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비닐하우스에 넣어 말려야 한다. 날이 더 추워지면 비닐하우스 안이라고 해도 잘 마르지 않는다. 색이 허영게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따고서도 이삼 일 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전 언제 된서리가 내릴지 모른다. 된서리가 내린 그날부터 겨울이다.

구름이 낀 하늘은 미간을 잔뜩 찡그린 얼굴이다. 박무가 자욱이 깔린 산과 산 사이에서 새도 좁게 날아오르지 못 한다. 집 앞 길에 차가 멈추는 소리까지 둔탁하게 들렸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보고 개들이 짖었다. 두 사람은 길 밑 호두나무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호두를 따는 모습이 눈에 잡혔다.

"저기요. 그거 임자가 있는 겁니다."

한 마디 했으나 두 남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손에 닿는 호두 몇 개를 더 딴 뒤에 천천히 길 위로 올라온다. 서둘러 고추 따기에 들어갔다. 다행인지 댕지, 팔 고추가 얼마 되지 않았다. 짓무르고 벌레 먹고, 그런 저런 것들을 제하니 익은 놈들이 별로 없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고추를 다 따 갈 때는 어둠이 열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서둘러 고추밭 아래 호두나무 밑을 살펴 떨어진 알을 주웠다. 길 아래로도 내려가 보았으나 눈에 띈 호두는 한 알 뿐이었다. 아무래도 길에 너무 가깝게 심은 모양이다.

연탄불을 갈고 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하다. 중학교 1학년이 다니는 아들의 소형 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으며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 유승도 (시인)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장,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목욕,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배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